

# 희년센터의 설립자 마이클 슬루터

마이클 슬루터(Michael Schluter) 박사 / 사회 김승욱

편집자: 영국 희년센터(Jubilee Center)의 설립자인 마이클 슬루터(Michael Schluter)박사와 제레미 아이브(Jeremy Ive)가 아프리카 우간다 KUMI대학교의 이영길 총장과 한국을 방문해 IVF 사무실에서 웨슬리 선교사, IVF 김종호 대표, IVP 신현기 대표, 김태항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 등이 함께 만나 희년센터와 이번 한국 방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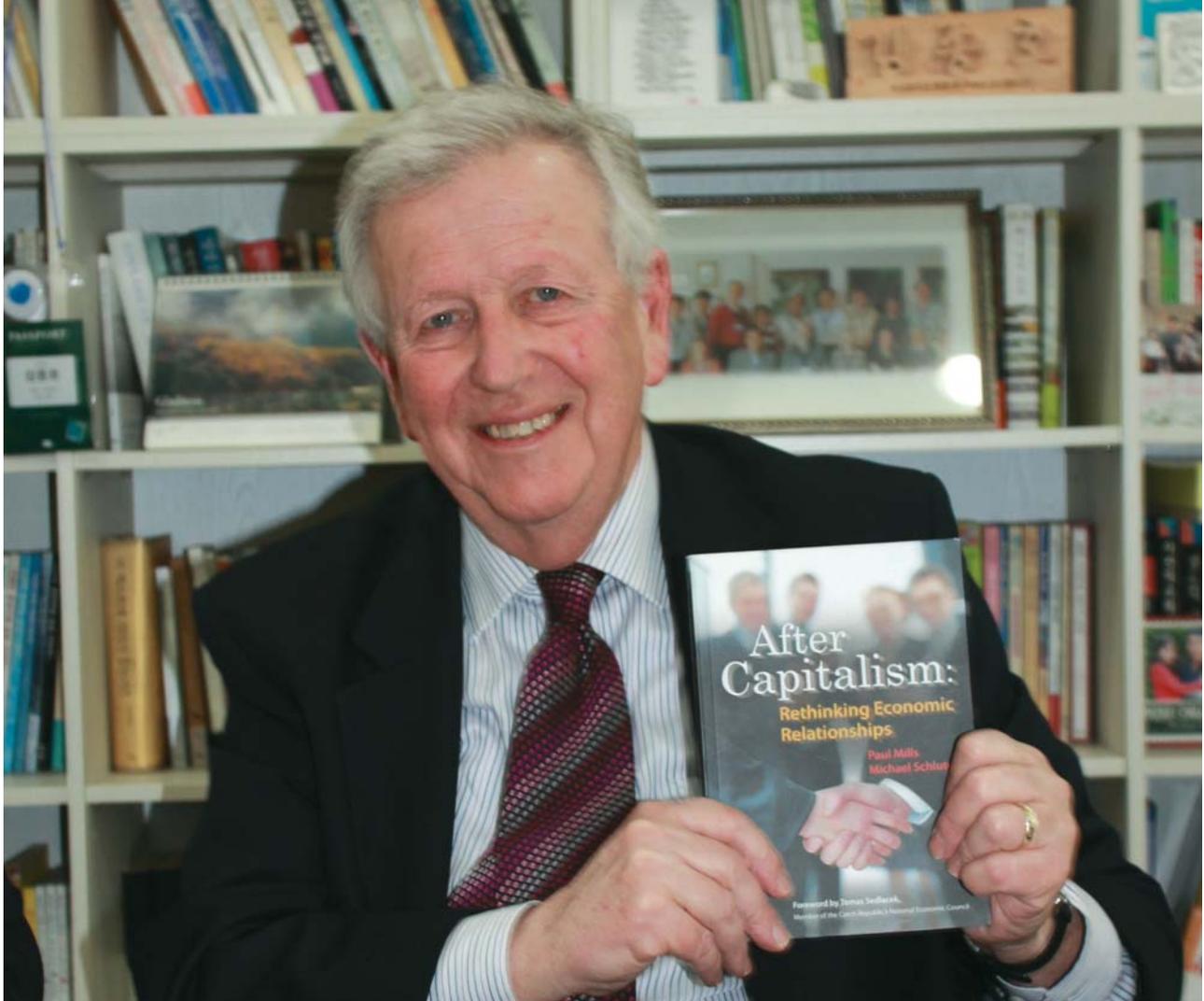
**김승욱** 희년센터(Jubilee Center)와 주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루터** jubilee센터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주요 이슈들과 그 밑에 숨어 있는 - 특히 일반 대중의 - 경향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회 변혁을 위한 신학과 전략 및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희년 센터의 임무이지요. 주로 정치, 경제, 사회의 큰 이슈들과 연관된 공공생활을 성경적 틀(framework)로 표현할 수 있게해서 크리스천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희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리셋 버튼을 의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와 콤파스라는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지도는 현대 사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의미하고, 콤파스는 올바른 관계를 중심 주제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승욱** 저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월드뷰>가 추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슬루터** 희년센터에 대한 비전은 1970년대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로 아프리카에서 일할 때,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이디오피아는 공산주의, 케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국으로 전환되면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가 무엇이며, 기독교는 청교도 정신이나 정의와 같은 것을 넘



어 공공정책에 대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분투하다가 성경적인 페러다임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를 심각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는 이 '사랑'이 사회체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월드뱅크에서도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월드뱅크의 직원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지난 1983년 아내와 캠브리지에 있는 우리 집에서 회년 센터를 세웠고, 노예제를 금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 대해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년 센터는 34년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을 특별하게 지키자"라는 캠페인(Keep Sunday Special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Relationships Foundation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해서는 모든 관계가 건전해 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미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계를 잘 정립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김승욱** 미래가 관계 정립에 달려있다는 말을 들으니 헤겔이 한 '서양종교는 초월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내적인 자의의식이 확장되어 개인의 발견에 능했으나, 동양에서는 초월자 신앙이 부족하여 외적인 도덕의식은 발전했지만 자아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원리가 결핍되었다'는 헤겔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점점 서구화되면서 관계성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미래가 관계의 정립에 달려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솔루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머나먼 길을 달려오면서 많은 사회적 개선도 있었지만 현대 세계는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많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비현실적인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만들고, 돈을 최고 가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인 연결(connections)로 보는 경향이 생긴 것 입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의 도전 앞에서 바르게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김승욱** 사람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개인들이 파편화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솔루터** 예. 인간 집단은 단지 개인들이 모인 집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거죠.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구적 개념은 칭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개인됨(individuality)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회 구성원간의 멤버십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독특하게 그리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배움, 인격, 성공, 심지어는 정체성 마저도 관계적인 산물입니다. 사회와 조직이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관계적 사고(Relational Thinking)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욱** ‘관계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관계적 사고의 대상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루터**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 중 ‘부요하게 하다’는 문장의 부(wealth)라는 단어는 돈 이상의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요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 때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행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빈민촌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서구사회는 돈이 부족하지 않지만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이 심각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예산배정을 통해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단기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장의 주요 요소인 관계망 하부구조(relational infrastructure)를 무시하게 됩니다.

**김승욱** 보통 경제학에서는 ‘하부구조’라고 하면 도로, 철도, 통신 등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인간 사회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부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부구조라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한다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루터** 그렇습니다. 관계의 질(relationship quality)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핵심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관계적 사고’입니다. 기업조직이든 정부든 관계의 질을 높여주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계적 사고입니다.

**김승욱** 앞서 관계(relationships)와 연결(connections)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SNS 시대가 도래하며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전화기가 가져다 준 소통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것이 관계적 사고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솔루터** 사회란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 연결(connections)된 것 이상의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자급하지 않고, 한 가지 생산에만 전념하며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 얻었습니다. 시장의 발달로 사람들 간에 상호연계성이 크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전화나 언론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연계망(connections)이라는 것은 관계성(relationships)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에 처

한 누군가를 만족스러울 만큼 돕거나 협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사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적 사고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사회적 결정을 통해서 연계망(linkages)의 종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관계적 사고는 관계적 하부구조를 만들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지속적이 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김승욱** 관계적 사고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추상적인 설명만을 해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관계적 사고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솔루터** 관계적 사고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정의, 관계적 사업, 관계적 라이프 스타일, 관계적 교육, 관계적 재무관리, 관계적 빈곤타파, 관계적 환경 등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적 교육이라고 하면 단지 아이들에게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를 깊어질 어린이들을 만드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관계적 교육이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즉 학생과 선생의 관계, 학생과 부모의 관계, 선생과 선생의 관계, 선생과 부모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는가도 가르칩니다.

**김승욱** 이런 식으로 설명해 해주시니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관계적 사업도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솔루터** 한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기업이 돈을 만들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의 분기별 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들, 즉 피용자와 공급자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기업은 보다 장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비효율을 가져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너머의 바람직한 경제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폴 밀스(Paul Mills)와 함께 집필한 『After Capitalism: Rethinking Economic Relationships』이라는 책입니다.

**김승욱** 저나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황 교수님도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



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솔루터** 이 책의 서문에 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경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반대 극단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히브리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세속화된 자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 약자에 대한 보호, 보다 나은 미래,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법치 등에 대한 신념은 모두 과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faith)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사고와 규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논

란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경제가 잘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작동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가 동정이나 온유함, 상호 이해 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체제는 매우 거칠고, 비인간적이며, 심지어는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 경제 체제의 기초들을 이러한 가치관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승욱** 다음 기회에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솔루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두 가지 형태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교섭을 제안하기 위해서 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김승욱** 이영길 총장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총장님께서 두 분과 함께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총장님은 이분들과 어떤 사역을 함께 하셨는지요?

**이영길** 3년 전에 영국 런던 근교의 농장에서 마이클 솔루터(Michael Schluter)와 제레미 아이브(Jeremy Ive)를 만난 것은 나에게 화해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제레미는 남아공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넬슨 만델라와 디클라크 대통령이 대립할 때 양자사이에 서 평화교섭을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용서, 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남아공의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후 르완다와 수단 분쟁 해결도 도운 바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중립적인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평화를 촉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교섭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민간 차원에서 남북 정부 간의 평화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과 함께 한동대를 방문했을 때, 카마이클 켈리지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닉 란팅가(Nick Lantinga) 교수가 우리에게 “사랑이 정치 영역에서 표현된다면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은 정치영역에서도 뚜렷한 의미를 지닌 가치일까? 마이클 솔루터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반도 평화교섭을 위한 여행 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문제가 결국 관계의 문제라고 보고 외교의 문제도 관계의(relational) 관점에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외교의 이름도 관계적 평화교섭(Relational Peacebuilding Initiatives: RPI)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 체제와 정책의 차이를 내려놓고 관계 맺고 사랑하는 것을 중개해 보자. 서로 사랑할 때 어떤 화학이 생기는지, 그 사랑이 정치와 외교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사랑이 상이한 체제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통합을 이끌 수 있는지, 사랑의 화학이 일어나도록 촉매자가 되어보자. RPI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사)평화한국과 관계를 맺고, 남북한 평화교섭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2-3회씩 남북 및 국제사회(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인도)의 지도자들이 만나 평화교섭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양쪽의 당면한 문제인 농업 및 식량안보 문제부터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1차 평화교섭 회의의 주제를 그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과 식량안보는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정치적인 이념 공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그 후 교육, 보건 나아가 정치, 경제 및 외교, 국방의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평화교섭 회의는 통일된 미래한국이 어떤 모습일까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외교의 주된 가치는 남북간의 관계회복에 있습니다. 이념과 정책, 체제의 차이를 넘어 외교적 플랫폼에 함께 한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결국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미래상이란 아름다운 관계가 모든 영역에

서 살아있는 사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승욱** 두 번째 목적이 지역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영길** 춘천을 방문했을 때 영국 손님들과 가졌던 춘천평화모임 회의는 향후 한반도 평화교섭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접근에 관해 정말 본질적인 확신을 던져주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보다 더 상위의 거룩한 가치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초월적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의 이념은 얼마든지 다양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춘천에서 방문한 예수마음교회(안동규 교수), 동부교회(김한호 목사)는 주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문이었습니다. 사암교회는 언제나 그렇듯이 친구가 되어 주고, 사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승욱**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